

Warm heart & Cool head

ECONOMICS NEWSLETTER 제 27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 발행인 : 윤택 / 편집인 : 김소영 / 편집조교 : 정진용 / 발행일 : 2012년 8월

노벨상 수상자 심즈 교수 초청 강연 및 발표회



우리 경제학부는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012년 6월 19일에 2011년 노벨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인 크리스토퍼 심즈(Christopher A. Sims) 교수와 미시, 거시 분야 세계 석학들을 모시고 'New Ideas and Issues in Economics'라는 주제로 '노벨상 수상자 초청 강연 및 발표회'를 서울대학교 58동 131호에서 개최하였다. 미시 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최근 이슈들과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오랜 지혜를 주제로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발표회에서는 발표자와 참석자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미시분야 세션에서는, 제도설계분야의 중견대가라 할 수 있는 노스웨스턴대(Northwestern University)의 라케쉬 보흐라(Rakesh Vohra) 교수와 컬럼비아대(Columbia University)의 최연구 교수가 참여하여, 네트워크 흐름(network flow)이론의 방법론을 차용함으로써 제도설계이론의 주요 연구주제인 가격차별과 경매이론분야에 의미있는 진전을 가져온 연구결과를 소개하였다. 보흐라 교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동적인 협상프로토콜(dynamic bargaining protocol)"을 통하여 이윤극대화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였고, 최연구 교수는 김진우(서울대), 콘라드 미에렌도프(Konrad Mierendorff, 쾰리히대) 교수와 공저한 논문인 "Generalized Reduced-Form Auctions : Network Flow Approach"에서 축약된 경매가 만족해야 하는 조건을 특성화하였다. 기존의 비교적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연구되어 왔던 축약경매 특성화 문제를 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다루기 위해 네트워크 흐름(network flow)이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거시분야 세션에서는 CERGE-EI(Center for Economic Research & Graduate Education - Economics Institute, 체코)의 필립 마테카(Filip Matejka) 교수가 "Rational Inattention to Discrete Choices : A New Foundation for the Multinomial Logit Model"로 강연을 하였고, 노스웨스턴대의 미르코 비더홀트(Mirko Wiederholt) 교수가 "Business Cycle Dynamics under Rational Inattention"이란 주제로, 홍콩대(University of Hong Kong)의 유레이 루오(Yulei Luo) 교수가 "Informational Frictions, Induced Uncertainty, and Aggregate Wealth Accumulation"이란 주제로 각각 강연을 하였다.

한편 이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심즈 교수는 "Optimality of Discretely Distributed Actions in Information-Constrained Decision Problems"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이 강연에서 심즈 교수는 경제 주체들이 정보처리 능력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제변수들의 관측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보의 작은 변화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

다. 따라서 정보의 변화가 연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경제주체의 반응이 연속적이지 않고, 오히려 불연속적이고 이산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특별 강연의 핵심적인 부분은 정보추적문제 (information-tracking problem)와 관련된 것이었다. 즉 정보추적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 투자자의 자산선택 또는 기업의 가격설정 문제에 정보추적 문제를 응용하는 예에 대해서 강의하였다.

또한 심즈 교수는 양자화(quantization)와 이산행위(discrete action)간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양자화는 연속인 분포가 정의되고 있는 확률공간을 분리하여 분리된 영역 각각에 발생확률을 부여하여 이산분포를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이와 같이 양자화된 경우는 심즈 교수가 분석하고 있는 정보추적문제의 해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러한 양자화된 해는 최적 이산 행위에서의 경우보다 더 작은 개수로 연속인 확률변수를 이산분포로 변화시킨다. 따라서 비선형 문제에서 보다 수월하게 해를 계산할 수 있지만, 한편 너무 손쉽게 모방이 된다는 단점이 있음이 지적되었다.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이번 초청 강연 및 발표회에서는 최근 경제학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 경제학자들이 함께 활발한 토론을 하며 경제학자로서 현실경제에 헌신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학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새롭게 동기를 부여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사전트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부임 예정



2011년 노벨 경제학상 공동수상자 토마스 사전트(Thomas Sargent) 교수가 2013년 1학기부터 우리 학부에 부임할 예정이다. 노벨상 수상자가 서울대 교수로 부임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사전트 교수는 지난해 크리스토퍼 심즈 교수와 함께 '거시경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 (Empirical Research on Cause and Effect in the Macroeconomy)'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사전트 교수는 UC Berkely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거시경제와 금융 분야의 대가로 1970년대 이후 경제학계를 지배해온 합리적 기대가설을 발전시킨 학자로 유명하다. 이번 임용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출범 후 추진해온 '글로벌 선도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첫 성과로 사전트 교수의 부임은 우리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의 학문적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NDEX

① 경제학부 주요소식 ② 교수수상 및 동정 ④ 신입학부장 인사말 ⑤ 신입교수 인사말 ⑥ 동문기고 ⑦ 재학생기고 ⑧ 동아리소개 ⑩ Bk21사업단 소식 ⑪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안내 ⑫ 경제학부단신

경제학부 학술행사

The 6th Annual Joint Workshop-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Wollongong

경제학부와 BK21사업단은 2012년 2월 23일 사회과학대학 655호에서 제 6회 Annul Joint Workshop-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Wollongong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경제학부 BK21사업단 단장인 이근 교수와 본교 경제학부 Elias Sanidas 교수, 울런 공대(University of Wollongong) 경제학부의 Ed Wilson 교수 등이 기조 연설 및 세션 진행을 담당하고 발표는 주로 각 대학의 대학원생들에 의해 이루어졌다(울런공대 아바스 모하마자데 외 1명, 서울대 김대현 외 5명 참여). 1부에서는 'Economic Growth, Trade, Energy Consumption and Environment in China: A Panel Cointegration Analysis'와 'Country

Risk and Interest Rate Differential between Korea and Japan, 1879-1942'이라는 논문으로, 2부에서는 'Exhaustible Resource Taxation: DSGE Modelling of a Resource Exporting Economy'와 'The Patent Licensing in a Bertrand Duopoly with Faithful Consumers'라는 논문으로 본교 경제학부와 호주 울런공대 간의 활발한 학술교류를 이어나갔다. 발표에 참여한 한 대학원생은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이렇게 많은 교수님들과 학생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본인의 연구주제에 대해 여러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그것을 검증받는 등 유익한 피드백이 된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2012 여름학회



본교 금융경제연구원은 2012년 6월 13일 서울대학교 호암 컨벤션센터 목련홀에서 2012 SIRFE Summer Workshop을 개최하였다.

"Recent Issues on Macroeconomic Policies for Advanced and Emerging-

Market Countries"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회에서는 금융경제연구원 원장인 본교 경제학부 이지순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Carnegie Mellon University의 Marvin Goodfriend 교수, University of Maryland의 Enrique Mendoza 교수, 본교 경제학부의 윤택, 김세직 교수가 각각 발표하였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로존 국가들이 극심한 경기침체와 국가채무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학술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금융정책 및 거시경제정책의 방향, 달성 가능한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였다.

제 2회 기후변화정책 국제공동세미나

본교 경제학부, 환경대학원, 지속가능경제연구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 2회 기후변화정책 국제공동세미나가 2012년 5월 18일과 19일, 사회과학대학 국제회의실과 환경대학원에서 양일간 개최되었다. 18일에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본교 경제학부 이준규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본교 경제학부장인 홍기현 교수가 인사말을 하였다. Arizona State University의 V. Kerry Smith 교수가 'Sustainable Environmental Economic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Feedbacks from Environmental Systems for Economic Markets'란 주제를, UC Berkeley의 W. Michael Hanemann 교수가 'What is Wrong with the Conventional Climate Change Damage Functions?'란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였다. 또한 본교 경제학부 이지순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여러 학자들, 대학원생들과 함께 심도있는 토론을 하며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교수수상 및 동정



박지형 교수 매경 이코노미스트 수상

박지형 교수는 2012년 3월22일 '제42회 매경 이코노미스트상'을 수상하였다. 매경 이코노미스트상은 1971년 처음 제정돼 올해 42회째를 맞은 국내 최고의 경제·경영학자 대상 학술상이다. 박지형 교수는 국가 간 무역분쟁이 발생했을 때 WTO 같은 제 3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불완전한 사적감시를 통한 국제무역협정의 이행(Enforcing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with Imperfect Private Monitoring)'이라는 논문을 『Review of Economic Studies』에 게재함으로써 반복게임이론에 대한 지평을 크게 넓혔다는 평가를 받아 상을 수상하였다.



이석배 교수 김태성상 수상

이석배 교수는 금번 2012년도 2월22일 열린 한국계량경제학회 총회에서 김태성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본 상은 40세 이하 경제학자들 중에서 학문적 성취가 탁월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서, 2년마다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석배 교수는 최근 최고 권위의 학술지 중 하나인 『American Economic Review』에 'Trends in Quality-Adjusted Skill Premia in the United States, 1960-2000(Pedro Carneiro와 공저)'라는 논문을 게재하는 등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윤택 교수 경제학부장 취임

경제학부 윤택 교수가 2012년 7월 16일 지난 2년간 경제학부장을 맡아왔던 홍기현 교수에 이어 경제학부 학부장에 취임하였다. 윤택 교수는 1983년 본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88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1994년 미국 시카고대 (University of Chicago)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윤택교수는 2011년 본교 경제학부에 임용된 이후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거시경제학을 가르치며 연구하고 있다.



홍기현 교수 교무처장 겸보

지난 2010년 7월부터 2년간 경제학부장을 맡아오던 홍기현 교수가 2012년 7월에 퇴임하면서 7월 23일 본부 교무처장에 겸무되었다. 홍기현 교수는 향후 2년간 교무처장을 맡을 예정이다.



이철희 교수 사회대 기획부하장직 겸무

이철희 교수가 사회대 기획부하장직을 겸무한다. 이철희 교수는 2012년 3월 26일부터 2014년 3월 25일까지 기획부하장직을 맡게 되었다.

교수 승진



김봉근 교수와 이철인 교수가 2012년 3월 1일,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했다. 김봉근 교수는 1990년 본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92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1990년 미시간대(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김봉근 교수는 2009년 본교 경제학부에 임용된 이후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미시경제학을 가르치며 연구하고 있다.

이철인 교수는 1991년 본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미시간대(University of Michigan)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철인 교수는 2009년 본교 경제학부에 임용된 이후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노동경제학, 재정학 등을 가르치며 연구하고 있다.

교수 신간 안내

경제학 들어가기



이준구, 이창용 공저
법문사 (2012년 2월 15일)

이 책은 현실의 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풍부한 읽을거리를 제시한다. 경제학이 현실의 경제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이런 사정은 경제학뿐 아니라 다른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경제위기와 관련된 이론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그 기본 골격이 잡혀가기 시작할 것이고, 이론과 현실 사이의 고리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을 공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학 공부가 지루하고 따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이점을 바로잡기 위해 풍부한 읽을거리와 함께 경제학에 대한 지평을 넓혀갈 수 있도록 돕는다.

북한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김병연, 양문수 공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년 04월 15일)

이 책은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활동의 증가, 즉 비공식화 현상을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가 시장경제의 규모나 추이를 추정하는 데 그쳤다면, 이 연구는 그와 더불어 계획 부문과 시장 부문의 관계와 그 동학을 분석하는 내용을 포괄한다. 따라서 이 책은 그동안 진행되어 온 북한 경제의 비공식화에 대한 논의를 개선하는 동시에 이를 체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는 우선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비공식 부문(시장 부문)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정량적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1996~2007년 동안 북한의 비공식 부문의 크기와 그 추이, 시장경제와 공식 계획경제의 관계, 정부의 시장통제능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2007~2009년 동안 북한에서 시행된 시장억제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고, 시장활동이 북한 사회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시장화에 대한 북한 정부의 관리 가능성을 시장화 촉진기와 시장화 억제기로 나누어서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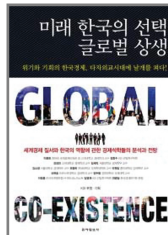
세계화의 역사적 조망



양동후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년 3월 15일)

이 책은 세계화 현상을 다루고 있다. 현재 FTA가 세계적으로 만발하고 있고 EU의 동부유럽 확장효과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성수지 흑자국과 적자국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져서 소위 '글로벌 임밸런스'가 확대되었다. 동아시아, 특히 중국, 그리고 석유수출국의 달러비축과 미국의 경성수지 및 재정수지 쌍둥이 적자 때문에 미국으로 자본이 대거 유입되었다. 결국 부동산 버블의 생성과 붕괴를 야기했고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화의 역사적 조망을 다시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시의성이 떨어지는 두 개장을 빼고 새로 쓴 세 개장을 추가하였다.

미래 한국의 선택 글로벌 상생



이창용, 김세직, 김소영 외 9명 지음
동아일보사 (2012년 5월 15일)

이 책은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일어나고 있는 세계경제 변화의 흐름을 진단해보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앞으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발생은 그 해 11월, 워싱턴에서 선진국들만이 아닌 신흥경제국들이 참여하는 G20 정상회의가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G20에서 한국은 책임 있는 글로벌 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크게 기여를 하였다. 선진국이 아닌 국가로 최초이면서, 아시아국가로서도 최초로 2010년에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그동안 쌓아온 잠재적 역량을 크게 발휘하였다.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에서 한국이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지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 한국이 글로벌 이슈에 관심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지,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국익과 연결되는지, 과연 우리가 어떤 이슈에서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과학 명저 재발견 3



전재성, 이지순, 양승목, 김영식, 박금주 지음, 오명석 옮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년 5월 30일)

이 책은 2009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 개최하는 '현대 사회과학 명저의 재발견' 집담회에서 발표된 11편의 글을 필자들이 직접 수정·보완하여 엮은 것이다. 이른바 '고전'이라 불리는 책들은 그 고전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읽었는가를 떠나서 이미 많이 소개되어 왔다. 이와는 달리, 현대의 주요 이론적 저작들은 막상 강의시간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전공자들이 가장 많이 읽고 참고함에도 불구하고 타 분

야의 연구자나 학생들에게는 거의 소개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대의 주요 이론적 저작을 선정하여 주요 내용과 의의 등을 소개하는 이 책은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역뿐 아니라 사회과학의 전체적 흐름을 짚어내는 데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인 필자들의 명쾌한 글을 통해 사회과학 연구자가 아닌 일반 독자들에게도 사회를 통합적으로 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경제발전의 철학적 기초



조승희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년 5월 30일)

이념논쟁의 극복을 위한 『경제발전의 철학적 기초』. 이 책은 이념과 경제발전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정치철학을 경제학의 영역으로 통합하고 있다. 경제발전에서 있어 경시해서는 안 될 제일의 중요한 사안임에도 그동안 경제학이 소홀히 다뤄온 경제철학의 문제를 다루며 발전경제학적 관점에서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경제라고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신임 경제학부장 윤 택 교수 인사말

경제학부 선후배 동문, 재학생 및 학부모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중순부터 새로 경제학부장을 맡게 된 윤택입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한 지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부장을 맡아 경제학부를 위해 봉사하게 된 점은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되지만, 한편으로 대규모 학부인 경제학부를 위한 중요한 책무들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경제학부 교수님과 동문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와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짧은 기간 동안 보았던 서울대학교의 큰 변화는 법전화입니다. 국립대학교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바뀌었지만, 그 동안의 기간이 짧아서 가시적인 변화를 크게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학부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법전화된 서울대학교의 새로운 체제 내에서 경제학부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는 경제학부 교수님들은 물론이고 재학생 및 동문들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사실 새로운 환경에서 경제학부라는 조직이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기 위한 장단기 전략과 아울러 경제학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시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가끔 생각해보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불황의 소제효과(cleansing effect of recessions)인데 이는 불황이 닥치면 누구나 다 어렵지만, 불황의 사회적 역할은 비효율적인 기업을 불황기간에 퇴출시키는 효과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말입니다. 최근 경제상황은 어느 나라이든 안심하기 어려운 지경인 것 같습니다. 유럽은 국가채무위기와 불



윤 택 교수

황으로 시달리고 있는 동시에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이 매우 더디게 나타나는 상황을 겪고 있어서 낙관적인 전망이 매우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향후 경기가 매우 밝지 않은 상황에서 법전화 이후의 여러 현안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학부가 불황의 소제효과를 훌륭히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저의 노력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외국생활을 하다가 귀국하면서 가장 빨리 감지한 변화는 한국경제가 2000년대에서도 꾸준히 성장하여 한국인들의 생활패턴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시간이 나면 문자메세지 또는 인터넷을 보기 위하여 스마트폰과 아이폰을 들여다 보려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은 어디에서든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전달의 속보성이 괄목하게 제고된 상황에서 경제학의 관심사도 다양화되어 갑니다. 전통적인 선진국의 거시경제모형분석에 더하여 최근에는 이머징 국가경제들이 선진국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고 그러한

특수성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이 예전에 비해 보다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화되는 추세 속에서 경제학부 출신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세계 각국의 경제학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학부와 관련되어 국내외의 경제학 교수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뉴스는 2011년 경제학 노벨수상자인 사전트 교수님이 내년 2013년 봄 학기부터 경제학부에서 교수진의 일원으로 근무한다는 점입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서울대학교에 체류한다는 사실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이제 한국경제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많이 제고되었다는 점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전트 교수님 그리고 그 일행들과 상호협력하여 학문 연구 및 학부발전의 차원에서 가시적으로 경제학부에 이득이 되는 결과를 내기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법전화된 서울대에서 경제학부가 보다 더 힘차게 전진하여 세계 탑레벨의 경제학부로 설 수 있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학문적인 성과에 더하여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경제학, 여러 분야 지식을 균형되게 포괄하는 경제학으로, 나아가 세상에 균형 있게 열매를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경제학을 품을 수 있는 경제학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력 및 주요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졸업 (1983. 2)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졸업 (1988. 6)
-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 박사 (1994. 12)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1. 2 - 현재)

기타 소식들

이헌재 前총리, 국보급 장승업 작품 서울대 기증



서울대 총장을 지냈던 이헌재 전 국무총리가 6월 18일 조선 말기 회화인 장승업의 '천수삼우도', 김규진의 '목죽도', 김응원의 '석란도' 등 개인 소유 작품 전부를 서울대에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한 그림은 모두 이 전총리가 부친에게 물려받아 소장하던 작품이다. '천수삼우도'의 경우 국보, 보물급에 준한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목죽도'에는 친일파 이완용의 글씨가 함께 남아 있어 사료로서도 가치가 높다.

경제학부 박사후과정생, 재무금융관련 5개 공동학술연구발표회 우수논문상 수상

우리 학부 BK21 사업단 박사후과정(Post-Doc) 연구원인 최영민 박사, 유원석 박사, 김영식 박사(지도교수: 안동현 교수)가 2012년 재무금융관련 5개 공동학술연구발표회에 발표한 논문(제목: "Knowledge Asymmetry and Issuer Behavior: The case of retail structured equity product")이 우수논문선정



위원회 투표를 통해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다. 참고로 5개 학회에 발표 신청한 일반논문 51편이 심사 대상이었으며, 이 중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다.

김진우 신임교수 인사말



김진우 교수

저는 이번 봄 학기부터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일하게 된 김진우 교수입니다. 국내에서는 저의 첫 일터였던 연세대에서 7년 동안 일하면서 정들었던 학생들과 동료들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옮기는 일이 힘들었던 만큼 앞으로 모교에서 보낼 날들과 그 시간을 함께 채워 나갈 학생들 및 동료들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전공은 넓게는 미시경제학, 좁게는 제도설계이론(mechanism design theory)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분야를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 제가 학부 2학년생이었던 시절로 돌아갑니다. 93년 어느 화창한 봄날, 저는 (지금만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신) 김태성 교수님의 미시경제학 수업을 듣기 위해 강의실을 뚫뚫히 메우고 있던 많은 학생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강의시작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분위기를 돋우곤 하셨기에, 그날도 저는 “오늘은 교수님께서 어떤 재미난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하실까?” 궁금해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식사를 막 마치고 오신 교수님께서, 늘 수유가 컸던 강의실 맨 앞자리를 효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식사 중에() 고민하시다 ‘이차가격경매’라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고 하시며 소개해 주셨습니다. 요약하자면, 각 학생으로 하여금 입찰가를 써 내게 한 후 가장 높은 값을 부른 학생을 맨 앞자리에 배정하되 두 번째 높은 입찰가를 가격으로 지불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독특한 경매방식이 가지는 이론적인 성격 및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리라 생각되지만, 당시 제 이해가 쏠랐던 탓에 교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점심식사시간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 놀라운 제도를 고안해 내신 교수님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기억은 지금도 또렷합니다. 이러한 경외심이 동기가 된 덕분인지 저는 그 과목에서만큼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고, 이는 후에 제가 미시경제학을 전공으로 선택할 때 남모를 작은 자신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 대학원에 진학하고 더 시간이 흘러 박사과정에서 전공을 정할 때 경매이론을 선택하게 된 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박사학위를 받은 지 9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경매이론을 계속 연구하고 있기에 20여 년 전의 그 수업시간은 지금도 마음 한 켠에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경매이론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며 알게 된 것은, 제가

20여 년 전 김태성 교수님께서 고안하셨다고 생각했던 이차가격경매(second-price auction)가 실은 60년대 후반 William Vickrey라는—훗날에 노벨상을 수상한—경제학자에 의해 발견된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포함한 몇몇 중요한 발견이 있는 이후 많은 이론 경제학자들의 노력이 이어졌고 현재는 제도설계이론이라는 미시경제학의 한 주요분야로 발전하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도설계이론은 경제제도(economic mechanism)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설계를 통한 개선이 가능한 대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바람직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그러한 제도는 어떤 형태를 띠어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경쟁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안적인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는 자원배분 문제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그 유용성을 더해가는 분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바람직한’ 제도란 규범적(normative) 의미뿐 아니라 실증적(positive)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설계된 제도가 아무리 훌륭한 규범적 속성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참여한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설계자가 목표로 하는 행동을 취하도록 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실증적인 면에서 제도설계이론은 게임이론을 그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게임이론의 분석적 틀을 접하고 익히는 것이 제도설계이론 연구가 지닌 또 하나의 매력이었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게임이론의 여러 분야에도 두루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의 과거 및 현재의 연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 보고자 합니다. 지난 수년에 걸쳐 저의 주요 연구 관심사였던 주제는 제도에 참여하는—종종 대리인(agent)이라고 불리는—경제주체들 간의 답합을 차단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가 의미를 가지는 상황은 기존의 제도가 답합에 취약한 경우입니다. 한 예로 위에서 언급한 이차가격경매를 비롯하여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많은 경매방식들은 입찰자들 간의 답합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왔습니다. 이 주제 하에 제가 수행한 연구 프로젝트 중 하나에서는 (경매를 포함한) 일반적인 제도설계환경 하에서 대리인들 간의 답합이 가능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답합과 관련한 저의 연구는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서는 경매에서 답합을 시도하는 입찰자들이 서로 간에 화폐이전을 할 수 없는 ‘약한 카르텔(weak cartel)’의 상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하여 기존에 알려진 많은 경매형태들이 약한 카르텔에도 취약하다는 사실과, 답합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판매자에게 적절한 수익을 보장하는 간단한 형태의 경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이고자 합니다.

제도설계이론은 근래에 들어 시장설계(market

design)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진화하여 왔습니다. 시장설계이론은 제도설계이론의 이론적인 성과들을 현실적인 자원배분 문제에 응용하되 각 문제마다 당면한 제약과 이슈들을 주의 깊게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하고자 하는 흐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설계분야에서 제가 현재 활발히 연구 중인 주제는 화폐이전(monetary transfer)이 제약된—혹은 화폐이전이 가능하지 않은—경우의 제도설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현실적인 예로는 공공주택 배정, 병원 인턴/레지던트 배정, 공립학교 배정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많은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매우 가치있는 자원의 배분과 관련되어 있으나 여러 이유로 인해 경쟁시장을 통한, 더 나아가 화폐라는 수단을 통한 배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들에 해당합니다. 일견 화폐라는 수단의 결여가 이러한 문제에 경제학적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게 하나, 제도설계이론 및 시장설계이론은 이러한 경우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매칭이론(matching theory)을 들 수 있습니다. 매칭이론은 인턴/레지던트 배정, 공립학교 배정 등과 같이 다양한 선호를 가진 쌍방의 경제주체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적절하게 ‘짝지어’ 줌으로써 경제적 효율성 및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경우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저의 최근 연구는 매칭에 필요한 정보가 경제주체들 사이에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매칭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로 공립학교 배정에서 학부모들이 자녀가 진학할 학교들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매이론분야에서 저의 연구는 이에 대한 실험경제학적 테스트로 자연스럽게 발전하여 왔으며, 현재 두어 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실험경제학적 방법론은 경제주체의 선호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모수(deep parameters)를 통제함으로써 주어진 제도의 성과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 프로젝트에서는 인터넷 검색 엔진 사업자들이 검색 키워드를 광고수단으로 판매할 때 흔히 이용하는 ‘일반화된 이차가격경매(generalized second-price auction)’를 실험적인 방법론에 바탕을 두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20여 년 전의 그 강의실로 돌아가 보면, 초롱초롱했던 눈망울로 교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가르침을 갈망하던 제 모습이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학생들이 앞으로 먼 훗날에도 기억할 수 있는 가르침을 과연 제가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한없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저도 많은 것을 배워가는 중에 있기에, 그리고 가르치는 과정이 곧 배워가는 과정이라 믿기에, 앞으로 제게 주어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의 시간을 정성을 다해 채워 나가리라 다짐해 봅니다.

〈학력 및 주요경력〉

- 경제학 학사, 1996, 서울대학교
- 경제학 석사, 1998, 서울대학교
- 경제학 박사, 2003, 위스콘신대

“우리가 먹는 쌀은 어디서 왔을까?”

(부제 : 아시아의 시대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이재영 (Senior Economist, AMRO)

1. 들어가는 말

경제학부 소식지의 동문기고 요청을 받고, 잠시 망설였다. 필자의 나이 사십 중반에 후배들에게 무슨 인생의 교훈을 얘기한다는 것이 좀 안 맞는다 싶었다. 그러다가, 조금은 독특한 필자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 기고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필자는, 재무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에서 공무원으로 20년을 일하다가, 현재는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AMRO)에서 근무하고 있다. AMRO는 작년 5월에 설립된 새내기 국제기구로서, ASEAN+3 국가들(ASEAN 10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과 한국, 중국, 일본의 3개국)의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감시하는 것을 주요한 임무로 하고 있다. 필자는 AMRO에서 일본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의 4개국에 대한 경제감시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 라오스의 찰쌀

2월 중순 연례회의를 위하여 처음으로 라오스를 방문하였다. 방문 둘째날 저녁에 라오스 정부관계자들과 만찬이 있었다. 라오스 전통공연도 보여주는 매우 품위 있는 라오스 식당이었다. 식사를 주문할 때가 되자, 종업원이 필자에게 찰쌀밥(sticky rice)을 먹으라니 아니면 그냥 밥을 먹으라니 물어 왔다. 여러 사람들이 찰쌀밥을 권해서 그것으로 주문했다. 라오스 사람들이 먹는 찰쌀밥은 우리나라의 흑미 찰쌀밥과 비슷했다.

그동안 필자는 우리가 먹는, 찰기 많은 자포니카 쌀은 한국과 일본, 중국 남부의 일부지역에서만 소비되고, 동남아에서는 보통 ‘안남미’라고 부르는 인디카 쌀을 먹는다고 알고 있었다. 라오스 사람들은 언제 어떤 경로로 찰쌀밥을 전래받아서 먹게 되었는 것일까? 같은 자리에 있던 라오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자신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찰쌀을 먹어왔다고 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있던 필자의 일본인 동료는 자포니카 쌀의 원산지가 라오스 북부이며 그것이 한국과 일본에까지 전래되었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먹는 쌀이 멀리 동남아에서,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는 라오스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은 무척 놀라운 것이었다.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필자로서는 우리가

먹는 쌀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주장할만큼 아는 바가 많지 않다. 다만, 라오스의 찰쌀밥은 필자가 동남아와 우리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3. 말레이시아어와 인도네시아어,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문자들

한국을 떠나오기 전에 싱가포르에 와서 도움이 될만한 책들을 사러 서점에 들렀다. 간단한 외국어회화 책도 좀 사려고 했는데, 라오스어와 말레이시아어 책은 찾기 어려웠고, 다행히 인도네시아어 책은 여러 권이 있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어 책이라도 좀 사려고 책을 대충 훑어보았는데, 머리말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어와 말레이시아어는 같다고 한다. 영? 이진 무슨 말이지?

동남아 국가들의 언어는 무척 다양하고 복잡하다. 동남아 최대국가인 인도네시아에 만도 300여개의 언어가 있다. 말레이시아어는 원래는 수마트라섬이 기원이라고 하는데, 말레이반도를 중심으로 중개무역이 발전하면서 이 지역의 무역언어로 발전했다고 한다. 현재 말레이시아어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되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1945년 독립선언과 함께 공식언어로 채택되었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등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각각 고유 언어를 갖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문자도 다양하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서양의 알파벳을 차용하여 사용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자국 고유의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라오스도 그 중 하나였는데, 70여개의 알파벳으로 된 모사하기 무척 어려운, 독특한 문자를 쓰고 있었다. 내가 이끄는 팀에는 캄보디아 출신의 이코노미스트가 한 사람 있는데, 그는 라오스문자를 대충은 읽을 수 있다고 자랑한다. 그에 따르면, 라오스는 캄보디아의 문자(크메르문자)를 단순화시켜서 자신들의 문자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는 태국도 캄보디아의 문자를 단순화시켜서 자신들의 문자(타이문자)를 만들었다고 한다. (타이문자는 1283년 수코타이왕국의 랍캄행 대왕이 크메르문자를 본떠서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1443년)하기 160년 전의 일이다.) 버마도 고유한 문자가 있다.

4. 태국과 미얀마, 그리고...

7월 중순에 세미나 참석을 위해 태국을 방문했다. 태국 재무부와 IMF, ADB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세미나였다. IMF 총재와 ADB 총재가 모두 참여했고, 한국과 일본 등에서도 고위인사를 파견한 큰 세미나였다. 몇 년 전까지도 아시아 지역에서 IMF 등 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국제세미나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 이후에 조금씩 익숙해진 모습이 아닌가 싶다. 바야흐로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다.

그 회의에 참석한 어느 한국의 고위인사를 당혹스럽

게 했던 이야기다. 그는 만찬자리에서 최근 민주화와 함께 새로운 투자처로 부각받고 있는 미얀마의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태국측 인사들이 갑자기 너도나도 미얀마에 대한 적대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다고 한다. 그들은 한결같이 미얀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미얀마가 최근에 받고 있는 각광과 주목이 부당함을 역설했다고 한다. 그 한국의 고위인사는 적잖이 당황하여 급히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렸다고 한다.

피터 처치의 책(Peter Church, “A Short History of South-East Asia” (5th Edition), John Wiley & Sons, 2009.)에는, 이와 관련된 부분이 간략히 기록되어 있다. “1767년, 아바(버마왕조)는 아유다(당시 태국왕조의 수도)를 공격했다. 도시는 파괴되었으며, 모든 유물은 강탈되었고(많은 유물이 현재 버마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함), 수만명의 태국인들이 포로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다. 아유다왕조는 그렇게 멸망하였다.” 아유다는 14세기부터 18세기까지 번성한 태국의 왕조로서, 시암(Siam)이라고도 불리었다. 1767년 버마의 왕조는 아유다를 침략하면서, 같은 불교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불상의 머리를 잘라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태국인들은 불교와 같은 종교를 가질 자격이 없다는 버마인들의 우월의식의 발로였다고 하는데, 태국인들의 자존심을 무척이나 크게 손상시키지 않았을까 싶다.

태국과 미얀마의 관계처럼, 동남아 국가들은 서로 민감한 사이인 경우가 많다. 인접한 나라일수록 그렇다. 동남아 국가들과의 교류에서는 이들 국가들의 역사와 지리에 대한 인문학적 지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5. 아시아의 시대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1세기가 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ADB, “Asia 2050: Realizing the Asian Century”, August 2011) 무역과 투자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로서는 성장하는 아시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아시아가 우리의 미래다. 이미 아시아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역과 투자는 전체 규모의 40~50%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고와 지식에서의 아시아의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을 아는 만큼, 인도네시아나 태국, 필리핀을 알고 있을까? 아시아에 대한 우리의 교육정책, 우리 사회전반의 인식을 점검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것이 아시아의 시대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싶다.

〈학력 및 주요경력〉

- 1986-1991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1990 행정고등고시(재경직) 합격
- 1991-1998 재무부 국고국, 재정경제부 대외경제국 사무관
- 1999-2003 미국 어바인 캘리포니아대학교 경제학박사
- 2003-2005 재정경제부 정책기획관실 서기관
- 2005-2006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
- 2006-2007 재정경제부 금융허브과장, 복지경제과장
- 2008-2011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 문화예산과장, 금융협력과장, 외화자금과장
- 2012- AMRO Senior Economist

“한 경제학도가 야구를 즐기는 방법”



김유연 (석사과정)

“How can you not be romantic about baseball?” (이래서 야구를 사랑할 수 밖에 없어)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머니볼>에서 주인공 빌리 빈이 입버릇처럼 되뇌는 말이다. 기성 야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방법론에 의거한 자신의 신념을 통해 개인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전체 야구계의 흐름 자체를 바꾸어 내는 <머니볼>의 이야기는 깊은 울림을 준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신체적, 정신적 결함에도 탁월한 의지력으로 이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일반적인 스포츠 영화의 감동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머니볼>은 그와 전혀 반대의 방향에서도 야구라는 스포츠가 재미있을 수 있음을, 야구를 사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내가 야구를 즐기는 방법과 극히 닮았기 때문에 나는 이 영화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

나의 야구에 대한 사랑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된다. 신바람 야구로 유명하던 LG 트윈스의 어린이 회원이 된 것이다. LG 트윈스나 해태 타이거즈 야구 점퍼를 입고 등교하는 것은 반 친구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던 시기였다. 특히 유지현, 김재현, 서용빈 신인 트리오와 소방수 김용수, 그리고 누구보다도 야생마 이상훈과 함께 했던 1994년은 영광의 해였다.

이후 나의 관심은 점점 한국 프로야구보다는 메이저리그로 옮겨 가게 된다. LA 다저스에서 승승장구하던 박찬호 덕분에 메이저리그를 접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내가 응원하던 LG 트윈스가 점차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아직까지도 나는 LG 트윈스를 응원한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뛰어난 경기를 보는 것은 매우 흥미진진하다. 하지만 단순히 경기를 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한국 프로야구 역시 그 재미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한다. 내가 메이저리그에 폭 빠지게 된 것은 다른 이유에서였다.

기업들이 홍보 차원에서 구단을 운영하는 한국과 달리, 메이저리그에서는 30개의 구단이 각각 이윤 극대화 혹은 승률 극대화를 하고자 선수들 이상의 노력으로 구단을 운영한다. 한국 구단들 역시 좀 더 강하고 좋은 구단을 만들기 위해 투자하지만, 한국 프로 야구에서는 전력 강화의 수단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먼저 팀 수도 적을뿐더러 핵심적인 선수를 팔기 꺼려하는 특성상 중요 선수를 포함한 트레이드가 활발하지 않다. 또한 자유계약 선수 시장 역시 나이와 원 소속 구단에 지불해야 하는 거액의 보상금 때문에 몇몇 스타 선수

들을 제외하면 팀 간의 경쟁이 심하지 않다. 반면 메이저리그에서는 체계적인 유망주 육성 시스템, 과감하게 이루어지는 대형 트레이드, 시즌보다 더 화제가 되기도 하는 자유 계약 선수 쟁탈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팀의 전력, 그리고 상품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일종의 활발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팀 운영을 총괄하는 General Manager, 줄여서 GM의 역할이 감독 이상으로 중요하고 부각된다. 경제학을 배우면서 더욱 메이저리그에 빠지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경제학적인 관점이 결합되면 이 매력적인 스포츠를 다른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메이저리그에서의 트레이드는 보통 즉각적으로 전력을 보강하기를 원하는 팀과 그 해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어려우므로 현재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를 준비하려는 팀 사이에서 일어나게 마련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팀은 현재 일정 수준 성적을 내고 있는 경험이 많은 선수를 제공하는 대가로 메이저리그에 갓 데뷔한 선수 혹은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마이너리그 소속 유망주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팬들이나 언론은 훗날 유망주들이 부진하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트레이드를 잘못된 트레이드라고 비난하곤 한다.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러한 평가 기준은 부당하다. 베테랑 선수가 현재 확실한 가치를 보장해주는 현금에 가깝다면 유망주는 그 가치를 예측하기 힘든 주식에 가깝다. 따라서 위와 같은 비판은 마치 현금으로 주식을 산 후 나중에 주식 값이 떨어지자 처음의 구매가 잘못된 것이라 평가하는 것과 같다. 트레이드에 대한 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트레이드 당시의 유망주의 기대치이다. 만약 어떤 트레이드로 인해 GM이 비판받아야 한다면 그 근거는 트레이드 당시 유망주의 부정적인 미래를 암시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거나 기껏 얻은 정보를 무시하는 등 불성실한 정보 획득 행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선수의 연봉에 대한 평가도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선수의 연봉은 그 선수의 가치의 반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액의 돈을 받은 선수의 성적이 부진하다면 잘못된 계약으로 평가하곤 한다.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이상, 선수의 연봉이 선수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제도, 당시의 시장 상황, 강력한 선수 노조의 존재 등으로 인해 선수의 연봉이 그 선수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시장에서 그 선수를 대체할만한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구단 사이에 경쟁이 붙었다면 당연히 선수의 연봉은 팬들이 생각하는 적정가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구단에게 있어 선수의 가치는 단순히 선수의 실력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일본인 선수 영입에 공을 들이는 것은 그들의 실력이 뛰어난 것도 있

지만 그들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구단이 선수에게 줄 연봉을 책정할 때는 단순히 승률 극대화가 아니라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는 실제 메이저리그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다. 앞서 인용한 영화 <머니볼>에서 오글랜드 어슬레틱스의 GM인 주인공 빌리 빈은 저평가된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이 예산이 부족한 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임을 깨닫는다. 하지만 실제로 저평가된 선수를 발굴하는 것은 예일대 경제학과 출신의 피터 브랜드의 역할이다. 그런데 <머니볼>의 이야기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화에 근거한 것이다. 최근 메이저리그에는 피터 브랜드의 실제 모델인 하버드대 경제학과 출신 폴 드포데스타를 비롯하여 젊은 경제학과 통계학 전문가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다.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는 기존의 선수 평가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선수를 평가하려는 세이버메트릭스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이버메트릭스에서는 투수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기준에 사용하던 승이나 방어율과 같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투수의 성적 중 수비수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홈런, 삼진, 볼넷 등을 이용한 수치를 만들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세이버메트릭스를 팀 운영에 적극적으로 도입한 2004년 보스턴 레드삭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으로 그 가치를 입증하였으며 지금에 와서는 계속 발전하는 세이버메트릭스를 간과한 채 야구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 경제학적 관점은 단순히 일부 팬들이 야구를 즐기는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구 판도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물론 우리가 스포츠에 열광하는 것은 통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나 역시 9회말 끝내기 홈런이나 선발 투수의 완봉승을 보며 열광하고 뛰어난 감독의 전략에 감탄한다. 응원하는 팀이 일시적으로 부진할 때, 장기적으로는 통계에 의한 기대 승률에 가까운 승률이 나올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내내 좋지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 간략하게 소개한 것처럼 어떻게 선수를 평가하고 어떻게 구단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켜보는 것 또한 하나의 재미일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야구팬들은 매일매일 경기가 펼쳐지는 시즌이 끝나면 너무나 괴롭다. 그런데 트레이드와 선수 계약은 경기가 쉬어도 끊임없이 이어진다. 쏟아지는 분석 기사와 트레이드 루머 사이에서 ‘뜨거운’ 저울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야구팬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일이 아닐까. 그런데 경제학적 관점을 적용한다면 이를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아니, 당사자들 자신이 경제학적 방법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단다. 경제학도이자 야구팬으로서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놓칠 수 있으랴.

“재학생기고”



김순신 (학부4년)

작년 8월경 한국경제신문에 친구의 얼굴이
기사가 났었다. TESAT 전국 1등에 경제
학과 친구가 수상을 한 것이었다. 지인의 모습
이 활자화 된 것에 놀란 나는 친구에게 연락을
했다. 친구에게 축하전화를 하는 도중에 시험
을 보길 권했고 TESAT 과 매경 TEST와의 인
연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경제학부에 진입한 후 나는 다양한 진로 가능
성에 놀랐던 것이 사실이다. 다양한 진로가능성
은 다변화된 선택을 보장하는 듯 했으나 나에겐
추상성의 모호함으로 다가온 것이 사실이다. 따
라서 많은 친구들이 뚜렷한 목표 없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기출중심의 공부와 요
약위주의 공부를 한다고 생각한다. 요약위주의
공부는 결국 경제학의 기본의 부실로 나타나게
되며 고급 과정으로 갈수록 미치지 공부의 불안
정성은 수학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나 역시 이러한 공부법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
었다. 미시, 거시 경제학 전 범위와 국제경제학 일
부가 출제되며 경영학 일반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는 경제 신문사들 주최의 경제학 시험에 대한
친구의 추천은 나의 관심을 끌었고 각 신문사에
서 주는 장학금 역시 나를 유혹하기에 충분했다.

현행 신문사가 주최하는 경제학 시험은 크게
두 가지 시험이 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주최하
는 TESAT 과 매일경제신문에서 주최하는 매경
test 가 있다. 각 시험은 비슷한 듯하나 각자의
특성이 있다. 한국경제신문의 TESAT는 국내에
서 가장 오래된 시험으로 단편적인 경제 지식을
묻는 퀴즈식 시험이 아니라 복잡한 경제 현상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
하는 종합경제 시험이다. 문제는 객관식 5지선
다형으로 출제되고 이승훈 교수님께서 출제 위
원장으로 계시는 시험이다. 2010년 11월 정부로
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으로 인정받았고
정기시험은 2, 5, 8, 11월 연 4회 치르게 된다.

경제신문 매일경제가 만드는 매경TEST(MK
Test of Economic & Strategic business
Thinking)는 경제·경영 기초적인 개념과 지식
은 물론, 응용력과 전략적인 사고력을 입체적으

로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와 경영
두 영역에서 각각 40 문항씩 출제되는 매경
TEST는 경제·경영 분야의 통합적인 이해력을
측정할 수 있는 인증시험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TUCE(Test of Under-
standing College Economics·경제 이해력 테
스트)와 같은 국가공인 경제 이해력시험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대학생들이 사회 진출 때 경제
적응력을 키우는 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과 일본 최고의 경제지 닛케이신문은 '닛케이
테스트'를 만들어 시행한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한국의 경제 신문 테스트도 역시 닛케이테스트
와 유사한 형태로 국내 대기업, 금융기관, 공기
업 등에서 인재 채용의 새로운 Tool로 활용 가
능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다.

결국 두 가지 시험은 비슷한 듯하나 TESAT은
좀 더 경제학이 어렵고 매경TEST는 경영 일반
과 시사상식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두 시험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매 시험마다 개인
에게 장학금이 수여되고 텃밭 경쟁을 통하여
3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되는데 이는 팀당 인원
이 5명임을 고려할 때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한국은행을 준비하는 동기와 함께 시험을 응
시하기로 하고 경제학 공부 소모임 S. E. T. S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했다. 경제 사건을 보는 다
양한 관점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영대학, 심리
학과 등의 친구들을 선발하였고 2주에 한번 서
로 공부한 것을 리뷰 하는 형태의 느슨한 스터
디를 진행하였다. 이후 시행된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서 개인부분 최고상을 수상하였
다. 물론 단체상 역시 수상할 수 있었으나 팀원
들 중 한명이 양 시험을 결사 하는 바람에 결국
실격처리 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팀원을 교
체하여 3월 달 이후 시험에서 TESAT과 매경
TEST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동아리 부분 대상
을 수여받는 쾌거를 거두었다.

스터디가 진행되면서 경제학에서 나오는 개
념들이 현실경제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
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미시와
거시, 거시와 국제경제학, 경제학과 경영학 등
의 다양한 개념의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하
여 현실 경제에 대한 기본적 판단이 가능해진
걸 느끼고 있다.

TESAT에서 대상을 받은 이후 사람들이 입학
사정관계, 취업 시 유용성 등과 관련하여 신문사
주관 경제학 시험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았고
공부법이나 시험 일반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질
문하였다. 그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하자면 신문
사 주최 시험들은 경제학과 경영학을 중심으로

각종 현실경제 현상이 사례로 제시되는 시험이
다. 현실 속에서 경영학과 경제학은 유사하면서
상이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시험은
양자 모두를 검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경
제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현실경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한 도구로서 매력에 있다.

시험의 고득점을 위해선 기본서 위주의 공부
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경영학과 경제학은
암기과목이 아닌 세상을 분석하는 거대한 도구
이기 때문에 논리적 정치성을 담보해야만 현실
경제에서 응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단순한 암기
및 문제풀이식 공부는 고득점으로 이어지기 어
렵다. 개념의 숙지와 기초 개념을 응용한 현실경
제에 대한 자신만의 가설설정이 경제학적 마인
드 형성과 고득점으로 가는 빠른 길이라고 생각
한다.

현실의 다양한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
여 경제신문을 읽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지면
신문의 완독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경제 전
반에 대한 중요도가 편집자의 눈으로 가공되어
나오기 때문에 지면신문을 읽게 되면 사건의 경
중을 가리기 쉬우며 독자의 기호와 무관히 모든
분야의 기사를 적어도 표제어만큼은 읽게 된다
는 장점이 있다.

자신만의 가설설정을 위하여 평소 자신의 행
동에 대한 내적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
다.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를 동기부여이론
이나 소비자선택이론으로 생각해보는 것, 또는
미국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변동의 원인과 미
래의 변화방향에 대해 나름의 이유와 근거를 탐
색해 보는 것이 결국 현실과 이론의 접목을 이
룰 수 있는 길인건 자명하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스터디 그룹을 적
극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경제 경영학은 이해
도에 개인의 편차가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양한 경력의 참여자가 구성하는 스터디 그룹
을 활용하면 자신의 이해도를 늘릴 수 있고 현
실 경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새로운 경제 경영 용어를 익
히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2학년 때 수강한 오성환 교수님의 화폐 금융론
시간에서 교수님께서서는 반쪽짜리 인재를 되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경영학과 법학의 기초
과목의 수강을 권하셨다. 교수님께서서는 세상의
예산선은 교과서처럼 매끈하지 않다면서 제도와
경영학 등을 배워야 현실 속에서 적합성 있는 학
문이 가능하다고 하셨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쪽짜리 인재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신문
사 주최 시험 역시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LES (Law & Economics Society)

1. 동아리 소개

LES는 법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술동아리입니다. 저희는 경쟁법을 통한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법을 집행할 대상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공부합니다. 저희는 법경제학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LESian간의 학술교류와 친목도모, 그리고 각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저희는 “냉철한 이성, 뜨거운 가슴”에 가장 잘 어울리는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2005년 8월에 창립하여 2005년 9월에 1기 회원을 모집하였습니다. 동아리의 주된 활동 중의 하나는 8월 혹은 9월에 열리는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대회 참가이므로, 이 대회를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에 1회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현재 2011년 9월에 모집한 9기 LESian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2년 9월 10기 회원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2. 지도교수님 소개

저희 LES의 장점 중 하나는 지도교수님과 긴밀한 관계입니다. LES의 지도교수님은 경제학부 이상승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은 법경제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을 지도해주실 뿐만 아니라, LESian들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통해서 멘토로서의 역할도 해주십니다. 저희 역시 궁금한 것이 있거나,



이상승 교수

동아리 활동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담당 강의 : 산업조직론, 경제수학(학부)
산업조직론 연구, 산업조직론특수연구(대학원)

3. 동아리 활동

(1) 법경제학 세미나

LES에 가입하시는 상당수의 분들이 법경제학과 공정거래위원회 쟁점에 관해 관심이 있는 학우들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서, 깊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동아리 선배님들과 함께 공정위 사례와 논문 등으로 법경제학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세미나는 저희 동아리가 이후 참가할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2)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참가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는 저희가 법경제학을 공



부한 내용을 활용하는 기회입니다. 이 대회는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법경제학 이슈를 저희가 찾아보고 직접 경연을 해보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가 기존의 사례를 공부하고 분석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경쟁법 사례를 저희가 찾아보고, 예상되는 이슈에 대해서 팀원들과 논의하는 과정은 법경제학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기회입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LESian과 동고동락하면서,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깊어지는 경험은 LES에서만 할 수 있는 가장 큰 경험입니다. 저희는 2003년부터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주제
2007	(주) 허브 MSO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한 건
2008	(주) OKT 및 (주)CTF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건
2009	(주) 에이나비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관한 건
2010	(주) 인투더파크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건
2011	(주) 헤리츠 금융지주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및 신고 규정 위반행위에 관한 건

저희 LES 9기는 현재 “(주) 대한거래소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건”의 주제로 11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아리회원들과 함께 서로 열띤 토론을 하면서,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LES의 열정을 통한 함께하는 경험은 대회에서 좋은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상 순위	대상 1위	대상 1위	대상 1위	우수상 3위	우수상 2위	대상 1위	우수상 2위

(3) 중국 칭화대 경제학부 EATH와 교류 세미나

저희의 세 번째 동아리 활동은 중국 칭화대 경제학부 EATH와의 교류세미나입니다. 매 해 겨울에는 저희가 중국을 방문하여 EATH와 경제 관련 이슈에 관해서 세미나를 하고 열띤 토론을 펼칩니다. 여름에는 EATH에서 한국을 방문하여 저희와 여행을 하고 세미나를 준비 중입니



다. 이번 8월에는 14회 교류 세미나를 준비중입니다. 그리고 세미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 친구들과 함께 현지탐방을 합니다. 저희 LESian들이 함께 해외에서 저희가 계획하고 관광하면서 LESian들은 더욱 돈독한 유대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중국 칭화대 학생들과 같이 세미나를 통해서 경제에 관해서 인식의 폭을 넓히고, 함께 여행도 하면서 동아리 학우들과 친해지는 경험은 LES가 가지는 또 다른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경제학부 동아리 SFERS와 연합세미나

네 번째 활동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동아리인 SFERS와의 연합세미나입니다. SFERS는 경제학부내의 금융경제 동아리입니다. 연합세미나를 통해서 저희의 법경제학에 대한 이해와 SFERS의 금융경제에 대한 이해를 서로 교류하는 장입니다.

LES는 위의 공식적인 활동 이외에도 교수님과 함께하는 등산, 홈커밍데이, MT, 친목모임 등 뜨거운 열정을 가지기 위해서 LESian들과 함께하는 많은 기회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대학 생활에서 잊지 못할, 졸업 후에도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5) 기타 행사

저희 LES는 사회의 경제적 이슈에서 정의라는 가치를 다른 학우들과 공부하는 동아리입니다. 특히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20여 학우들과 함께 준비하는 과정은 대학생활 동안 흔치 않은 경험으로서, LES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대학생들의 가장 큰 추억, LES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2012년 9월 10기 회원 모집에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K21사업단 소식

우리 경제학부는 2006년부터 21세기 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Brain Korea 21)의 인문사회분야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국제적 경제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사업단」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2년도 상반기 학술활동

BK21 사업단은 2012년도 상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학술활동을 지원하였다.

- BK21/김태성기념세미나 25회
- Brown Bag Lunch 세미나 6회
- 경제사 워크숍 13회
- 장단기연수지원 단기 3회

아래는 2012년도 상반기 BK21 사업단의 학술활동의 상세내역이다.

BK21/김태성 기념세미나

故김태성 교수를 기념하고 경제학부 BK21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Eyal Winter (Hebrew University)

How to Throw a Party: Contracting with Heterogeneous Externalities

송경철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Econometric Inference on a Large Bayesian Game

신영기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Testing for Distributional Treatment Effects: A Set Identification Approach

John Conley (Vanderbilt University)

Dixit-Stiglitz Approaches to International Trade: Enough is Enough

Masaki Aoyagi (ISER, Osaka University)

Coordinating Adoption Decisions under Externalities and Incomplete Information

Emanuel Ornelas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Free Trade Agreements and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John A. Mathews (LUISS Guido Carli University)

Fast Follower Competitive Dynamics' in Korea, Taiwan and China

Hamid Sabourian (Cambridge University)

The Bounded Memory Folk Theorem

Joshua L. Rosenbloom (University of Kansas)

Economic Growth in North America Before 1800

Roger Gordon (UC San Diego)

The Choice of the Personal Income Tax Base

Ippei Fujiwar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Global Liquidity Trap

이정윤 (LSE)

Series Estimation under Cross-Sectional Dependence

한진용 (UCLA)

A Dual Approach to Confidence Intervals for Partially Identified Parameters

Kengo Kato (Hiroshima University)

Quasi-Bayesian Analysis of Nonparametric Instrumental Variables Models

강가람 (University of Pennsylvania)

Lobbying for Power: A Structural Model of Lobbying in the Energy Sector

David Mowery (UC Berkeley)

제3산업혁명과 미국 산업 연구개발의 진화: "Plus ça change?": Industrial R&D in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Peter Lindert (UC Davis)

Capitalist Welfare and the Welfare State

안성배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Bayesian Estimation of an Economy with Recursive Preferences

Sudipta Sarangi (Louisiana State University)

Conforming Information Flows in Networks

Toru Kitagawa (UCL)

Estimation and Inference for Set-Identified Parameters Using Posterior Lower Probability

Lars Ehlers (University of Montreal)

Regulation via the Polluter-Pays Principle

Peter Nilsson (Stockholm University)

Does a Pint a Day Affect Your Child's Pay? Unintended and Permanent Consequences of a Temporary Alcohol Policy Experiment

Robert Dekl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The Real Exchange and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U.S. and China: 1985 to 2010

Michihiro Kandori (University of Tokyo)

Synchronous and Asynchronous Revision Games

조운영 (The World Bank)

Entrepreneurship Programs in Developing Countries: A Meta Regression Analysis

경제사 워크숍

고선(중앙대학교)

공립 초등 학교교육의 보편화: 19세기 미국의 경우

박경로(경북대학교)

두 위기 이야기(글로벌 금융위기와 대공황 금융위기의 비교)

이영훈(서울대학교)

벽골재는 과연 저수지였는가?

손기태(국민대학교)

The Gender Gap in Earnings among Teachers: The Case of Iowa in 1915

Joshua Rosenbloom(U. Kansas)

Economic Growth in North America Before 1800

류상윤(낙성대연구소)

경매의 역설: 한국경제사의 경험

양동휴(서울대학교)

금본위제의 성립은 역사적 진화인가: 복본위제의 단상

김신행(서울대학교 명예교수)

An Escape from the "Malthusian Trap"

Peter Lindert(UC Davis)

Capitalist Welfare and the Welfare State

홍계환(서울대학교)

인적회사와 유한책임: 조선의 회사 등기 자료 분석, 1925-40

정일용(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의 경제 개혁, 빈곤 그리고 불평등

홍석철(서강대학교)

Postbellum Decline of White School Enrollment in Southern US

김공희(런던대학교)

'리카도적 틀'을 넘어서: 노동가치론적 국제무역이론 구성을 위한 하나의 시도

Brown Bag Lunch 세미나

BK21 사업단에서는 간단한 점심식사와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참여대학원생이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Brown Bag Lunch 세미나'를 시행하고 있다.

고지현

Regulation of Natural Monopolies, Self-Selection, and Optimal Taxation

공 치

The Study about the Regional Trade & Financial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김명옥

Analysis of Bond Fund: Macro Factor Model Approach

김대현

한국의 지역간 금융시장통합, 1876-1942

이천국

지역경제균집과 공간편극 특징-중국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이 공

The Impact of Financial Crises and IT Revolution on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Evidence from Social Accounting Matrices

BK21사업단 장단기 연수지원

단기연수지원 (논문발표지원)

기지훈(박사과정생) 호주/브리즈번

An Evolutionary Model of the Changes in Industrial Leadership and Catch-Up: A Simulation Model for a Theory of Catch-Up Cycle

이공(박사과정생) 네덜란드/그로닝겐

The Impact of Financial Crises and IT Revolution on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 Evidence from Social Accounting Matrices

장인기(박사과정생) 호주/브리즈번

Egalitarianism in the Theory of Justice

서울대학교 최고전략과정 안내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는 1961년도에 설립되어 60년에 이르는 전통과 역사를 지닌 연구소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및 경제·경영학 관련 전공 교수 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7년 말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금융위기를 보면서 경제연구소에서는 경제학부와 더불어 세계 속에서의 한국경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1년 3월부터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dvanced Strategy Program for Global Economy : ASP)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9월(24기) 입학생을 모집하는 본 과정은 이미 700여명의 동문을 배출한 최고 수준의 교과과정과 강사진을 갖춘 산학협동과정으로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화된 디지털경제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전략방향 수립을 위한 지식 습득과 능력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사회 각계를 대표 하는 지도자로서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비롯, 국가전략을 결정하는 책임있는 당국자, 금융 및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은 우리 나라 정부와 기업이 세계화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나라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세우는 데 주역을 맡으신 여러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ASP과정의 특징

1. **과정 수료자에 대한 이수증 수여** - 6개월간에 걸친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총장 명의의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2. **동창회 조직** - 본 과정 이수자들간의 상호교류와 학교와의 연계를 위하여 동창회를 구성하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 소속됩니다.

3. **정기간행물 및 시설 등의 이용** - 수강자들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경제논집, Seoul Journal of Economics 등)과 자료들을 증정 받으며, 본 연구소의 각종 시설(도서관, 세미나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개인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4. **각종 세미나 및 행사 참여** - 본 과정 수강자들은 경제연구소가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및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제연구소는 주례발표회(매주 수요일 12시), SJE 세미나 및 저명교수 초청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ASP 입학안내

① **모집인원** 약 40 명

② **입학자격** 1) 국회의원급의 정치인 2) 3급 이상 공무원 3) 주요기관의 기관장급 간부
4) 금융기관의 임원 5) 기업의 임원 6) 기타 이에 준하는 인사

③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④ **모집횟수** 연 2회(봄학기 모집 : 1~2월, 가을학기 모집 : 7~8월)

⑤ **이수요건** 강의 출석률이 70% 이상일 것

⑥ **모집안내** - 전화 : (02) 880-5432 - Fax : (02) 875-9867

- Email : asp@snu.ac.kr - Home Page : http://ier.snu.ac.kr

- 주소 : 우)151-74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16동 523호)

커리큘럼

주제(과목)	이수기간	이수시간
금융·재정	1주	6시간
국제경제	4주	24시간
경제발전	5.5주	33시간
정치·외교	2주	12시간
교양	3.5주	21시간
총계	16주	96시간

※ **수업방식** : 매주 월요일 수업, 1일 2강좌 (총 32강좌)

1강좌 : 6시 30분 ~ 7시 45분(75분 강의)

석식 : 7시 45분 ~ 8시 25분(40분)

2강좌 : 8시 25분 ~ 9시 40분(75분 강의)

※ 매 기 수강생의 구성에 따라 주제별 시간 편성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ASP 23기 수료자명단

1. **강덕재** 농협은행 채널개발부 부장
2. **강영길** 삼성물산(주) 상무
3. **김민철** 코레일공항철도(주) 본부장(상임이사)
4. **김선권** (주)카페베네 대표이사
5. **김성하**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6. **김영봉**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장
7. **김은태** (주)하이닉스반도체 상무
8. **김종수** (주)유비셀 대표
9. **김종완** IBK기업은행 부장
10. **류성춘** 대우증권 상무

11. **박종희** 한국기업평가 본부장
12. **박한수** 신협파애펜(주) 대표이사
13. **서우택** 한국수출입은행 실장
14. **심기옥** 이트레이드증권 상무
15. **오광진** KT 실장
16. **이상재** 딜로이트컨설팅 상무
17. **유선욱** (사)한국바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
18. **윤재엽** 삼양홀딩스 부사장
19. **윤태용**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20. **이상용** 삼성생명(주) 전무

21. **이을죽** 경기도청 여성가족국장
22. **이찬근** KB국민은행 부행장
23. **임흥명** 대성주식회사 전무이사
24. **장주인** (주)우노디자인 대표이사
25. **정영춘** 하나은행 본부장
26. **조성목** 금융감독원 국장
27. **조용래** 신원종합개발(주) 대표이사
28. **조희중**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상무
29. **한상환** 금융결제원 감사실장
30. **한중관** 신용보증기금 이사

※ 인적사항이 변한 동문 또는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는 동문께서는 소식지 담당자에게 팩스, 이메일, 우편 등 어떤 형태로든 소식을 보내 주시면 다음호 소식란에 게재 하겠습니다. 소식지는 경제학부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학부 홈페이지에는 졸업생을 위한 학년별 게시판들을 새롭게 만들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mail: snu97113@snu.ac.kr

전화: 02-880-6359

홈페이지: <http://econ.snu.ac.kr>

학생수상 및 장학금

장학금 수여

2012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을 통해 경제학부 학부생 1078명 중 169명(전액 장학금 17명), 대학원생 47명이 수혜를 받았다. 또한 항상 장학금을 통해 2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으며, 기타 교외장학금을 통해서도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았다.

상대동창회 졸업생 포상 및 장학금 전달

이병찬 학생과 최영훈 학생이 성적최우수자로 선정되어 상대동창회로부터 상을 수여받았다. 또한 김영해 학생 외 19명이 상대동창회로부터 장학금을 전달받았다.

2012학년도 향상장학금 수여식

2012년 2월 28일 경제학부 7명의 교수가 호암교수회관에서 18명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향상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교무 및 학생활동

201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2012학년도 전기 졸업식이 2월 24일(금) 14시에 중합체육관에서 있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을 통해서 경제학부는 김대현 외 8명의 박사를, 도민영 외 23명의 석사를, 이병찬 외 165명의 학사(최우등 39명, 우등 61명)를 배출하였다.

2012학년도 경제학부 대학원 후기모집

경제학부는 2012학년도 대학원 후기모집을 실시했다. 석사과정은 전공필답고사 성적으로 1차 선발하여 면접 및 구술고사를 거쳐 최

종 18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박사과정은 석사과정에서의 연구성과 및 향후 연구계획 등을 바탕으로 서류평가와 면접 및 구술고사를 통해 총 7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2013학년도 경제학부 석박통합과정 후기모집

경제학부는 2013학년도 석박통합과정 후기모집을 실시하였다. 석박통합과정은 석사 및 박사 전공필수 과목인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경제통계학, 고급미시경제학, 고급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을 모두 수강한 석사생 중 졸업 및 수료대상이 아닌 학생들이 지원 가능하다.

2012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

본교는 2012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업을 2012년 6월 22일 ~ 2012년 8월 2일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경제학부는 학생들의 하계계절학기 개설희망교과목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학개론', '경제원론1,2',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경제통계학', '정치경제학입문' 및 '경제수학'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경제학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실시

경제학부는 2012년 전공신입생을 대상으로 학부안내 오리엔테이션을 2월 23일에 개최하였다. 학부장 및 부학부장을 비롯한 경제학부 교수들이 참석하여 전공신입생들을 환영하였다. 이 자리에서 교수들은 환영인사와 함께 학생들이 앞으로 학교생활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과 알찬 대학생활을 위한 조언을 해 주었다. 행사 후 교수들과 학생들은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간담회를 가졌다.

스승의 날 행사 개최

경제학부는 5월 14일부터 18일까지를 스승의 날 주간으로 잡고 스승의 날 행사 'Meet the professors'를 개최하였다. 우리 학부는 약 1000여명의 학생과 38명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어 평소 자유로운 사제 간의 교류가 힘들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 같은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서 학생들은 담당교수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국제화 추진 현황

2012학년도 1학기 영어강의개설목록

담당교수	교과목명
박지형	Studies in International Trade
윤택	Money and Finance
이철인	Human Life and Economy Analysis of Public Policies
황윤재	Topics in Econometrics
Elias Sanidas	Microeconomics International Economics Exercises in Economics
이석배	Studies in Applied Econometrics
Jihong Lee	Mathematics for Economists Studies in Microeconomics
Oyvind Thomassen	Principles of Economics 2
Xifang Sun	Principles of Economics 1 Studies on the Chinese Economy
Chenggang Xu	Topics in Corporate Organization and Economic Systems

2012학년도 외국인특별전형 후기모집

경제학부는 2012학년도 후기 외국인특별전형을 실시하여 서류평가를 통해 3명의 석사과정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이번 외국인특별전형은 총 15명의 외국인 학생이 지원한 가운데 2명의 중국인 학생과 1명의 미국인 학생이 선발되었다.

버클리대 경제학과 방문수학 프로그램(BESAP) 학생선발

경제학부는 2012년 4월 말 선발전형을 실시하여 6명의 학생을 BESAP 학생으로 선발하였다. BESAP은 미국 명문대학인 캘리포니아 버클리대(UC Berkeley)와 협약을 통해 학부 3,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버클리대 경제학과와 봄학기 정규과정에 방문 수학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대발전기금 출연 현황

- 골드윈코리아(대표 성기학, 동문) 5억원(학술 및 장학)
- 광명해 1억원(광승영학술기금)
- ASP 22기 동문 1,000만원(학술)
- 서울상대향상장학회 1,000만원(학술)
- 손병욱(푸르덴셜생명보험 대표) 500만원(이석영장학금)
- 박 승(동문) 50만원(학술)
- 정윤해(동문) 40만원(학술 및 위임)
- 김경동(사회학과 명예교수) 30만원(학술)

발전기금 모금 안내

그동안 경제학부 발전기금에 출연해주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금은 경제학부의 발전을 위하여 유익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제학부의 전통을 이어 받아 앞으로 위상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제학과 경제학부를 둘러싼 주위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 중심 교육과 함께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응용경제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과 지원 프로그램의 획기적인 개선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수요에 대처하고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에 더욱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학부의 위상을 이어나가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 만큼 동문 여러분의 애정과 정성어린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학부 발전기금에 출연을 희망하시는 동문께서는 다음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을 하신 뒤 하단의 연락처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제상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 계좌번호 : 079-12-016051 (농협, 서울대지점)
- ▶ 예금주 : 사회대 경제학부

기타 발전기금 관련 문의사항 및 관련내용은 경제학부 사무실의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발전기금 담당자 연락처 전화 : 02-880-6361
E-mail : kang97@snu.ac.kr